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처럼 탐욕과 헛된 생각으로 들떠있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십시오. 새벽공기처럼 맑고 차분함을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천안함 사고로 말미암아 남북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향기가 멀어진 곳, 분쟁의 소문으로 거칠어진 이 나라에서 우리의 마음도 온기를 잃어갑니다. 주님, 폭풍 속의 배처럼 요동하는 이 나라를 붙잡히 여겨 주시고, 평화를 위협하는 광포한 바람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온기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평화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62:4 인도자

♠ 교 독 문 1. 시편1편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박소진 선생 II.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13(통35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함께

성경봉독 I. 막 9:14-29 임창주 학생

..... II. 요삼1:11-12 진정숙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둘 하나의 기적 이성운전도사

..... II. 세 가지 반성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양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선한 생각을 품으며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누구를 대하든 선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마음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선악을 따지기보다는 득실을 따지며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선을 따라 살겠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진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욕망의 소리보다는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말씀: 김기석 목사	예레미야서 / 김재흥 목사
기도: 김근중 권사	기도 : 조항미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안 훈 선생	임해나 학생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김윤정 집사

5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훈동 조관행 유경순 홍선희 이현숙
	헌금위원	한상익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죄수의 이빨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으면 뽑은 이빨을 커다란 포르말린 유리병에 넣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모았을까. 두어 뒷박은 죽히 됴직한 그 많은 이빨들 속에 나의 이빨을 넣고 나면 마음 뒤끝이 답답해집니다.

지난번에는, 물론 많이 흔들리는 이빨이기도 했지만, 치과에 가지 않고 실로 묶어서 내 손으로 뽑았습니다. 뽑은 이빨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어느 날 운동 시간에 15철 담 밖으로 던졌습니다. 일부분의 출소(出所)입니다. 어릴 때의 젓니처럼 지붕에 던져서 새가 물고 날아갔다던 이야기 보다는 못하지만 포르말린 병에 넣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10여 년 더 된 이야깁니다만 그때도 치과에 가지 않고 공장에서 젊은 친구와 둘이서 실로 묶어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담 곁에 갈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궁리 끝에 마침 우리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풍한 방직 여공들의 작업복 주머니에 넣어서 제품과 함께 실려 보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일입니다. 아무리 종이로 예쁘게(?) 썼다고 하지만 '죄수의 이빨'에 질겁했을 광경을 생각하면 민망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징역 사는 동안 풍치 때문에 참 많은 이빨을 뽑았습니다. 더러는 치과의 그 유리병 속에 넣기도 하고, 더러는 교도소의 땅에 묻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담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비단 이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곧 우리들의 심신의 일부분을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묻는 과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무심한 한 마디 말에서부터 피땀 어린 인생의 한 토막에 이르기까지, 혹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혹은 한 돼기의 전답(田畓)속에, 혹은 타락한 도시의 골목에, 혹은 역사의 너른 광장에 저마다 묻으며 살아가는 것이라 느껴집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경우는 나의 많은 부분을 교도소에 묻은 셈이 됩니다. 이것은 흡사 치과의 포르말린 병 속에 이빨을 담은 것처럼 답답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도소가 닫힌 공간이라면, 그래서 포르말린 병처럼 썩는 공간이라면

그러한 느낌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돌이켜보면 교도소는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곳이 아닐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 사회, 우리 시대와 가장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것의 어떤 복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라밋을 거꾸로 세웠을 경우 그 꼭짓점이 땅에 닿는 자리, 즉 피라밋의 전중압(全重壓)이 한 점을 찌르는 바로 그 지점에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도소는 사회의 모순 구조와 직결된 공간임으로 해서 전 사회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묻은 나의 20여 년의 세월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포르말린 병의 그 답답함이 연상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징역살이라 하여 한시도 끊임없이 내내 자신을 팽팽하게 켜겨놓을 수도 없지만 어느새 느슨해져버린 의식과 비어버린 가슴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깨어 있지 못한 하루하루의 누적이 만들어 놓은 공동(空洞)입니다. 피라밋의 전중압이 걸려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공동화(空洞化) - 역시 교도소가 만만치 않음을 실감케 합니다.

묻는다는 것이 파종임을 확신치 못하고, 나눈다는 것이 팽창임을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나의 소시민적 잔재가 치통보다 더 통렬한 아픔이 되어 나를 찌릅니다.

계수님께 편지 쓸 때면 으레 약간의 망설임이 없지 않습니다. 징역 이야기만 가득한 나의 편지가 계수님의 생활에 무엇이 되어 나타날지, 공연히 계수님의 방 창유리나 깨뜨려 찬바람 술렁이게 하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수님의 편지와 그 편지에 실려 오는 계수님의 면모와 생활 자세는 이러한 나의 망설임과 걱정을 시원하게 없애 줍니다. 건강과 가내의 평안을 빕니다.

1987년 5월 28일, 전주교도소에서

열 매

오세영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동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탕자만은 동글다

땅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뽀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덥씩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동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우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권미숙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박재임 김희진 박홍재
 박지인 박창운 허정윤 이한림 김명희 임주빈 최현옥 원인해 조현권
 박병구 이우원 옥귀희 한완식 임정자 조병무 송양진 곽새롬 무명

월정헌금:

권미정 박옥순 배부례 송임희 이성범 이소순 이은자 이현순 최철수
 곽권희 김문주 유지은 이광섭 정완수 김재광 이수정 배재경 하정석
 이명희 송동준 김진경 이주현 무명

감사헌금:

이봉배 전성오 오정숙 이건화 최종훈 김금화 김정우 하진채 강순배
 이정현 김민아 김성한 조영순 우순덕 김순복 무명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김희우 백혜숙 이봉배

생일헌금:

윤미경 박옥순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이재문	서원금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이명희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문금석	신동례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시온	박효선	허정윤	심	김정숙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심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오복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황선희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심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심	유혜경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백성례	박혜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령강림절** :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이며 웨슬리회심 27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2. **임원회** :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3. **2010생명살림한마당** : 감리교 선교국 환경 선교위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연합으로 주최하는 생명살림한마당이 26일(수) 광화문 감리교 본부 희망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장터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4. **신앙실천** : 절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전등은 꼭 소등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시온 속 (다음 주 : 엠마오 속)

* 설거지 봉사 : 장재영 김재영 이준하 (다음 주 : 이국노 김민화 이준하)

* 새교우 :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